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8% 하회”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제시한 2.8%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제출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내년중 성장률은 직전 전망 수준(2.8%)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1%포인트 내려잡은 2.8%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2%대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3.0%에서 0.4%포인트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한국금융연구원 2.5%, 산업연구원 2.5%, 나이스 신용평가는 2.4%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이들보다 더 낮은 2.2%로 보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상방리스크... 경기회복·자원수출국 여건 개선

하방리스크... 미 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경제심리 위축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주요국의 경기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자원수출국 금융·경제여건 개선 등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가장 먼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꼽았다.

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 차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교역을 위축시켜 세계경

제 성장세가 제약될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정책금리가 내년과 2018년에 각각 3회(0.75%포인트) 정도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이탈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빼놓지 않았다.

영국이 EU탈퇴는 물론, 유럽 단일시장까지 떠나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EU간 교역 축소 등으로 양 지역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영국에 위치한 국제금융기관의 영업여건 악화 및 금융서비스 제공 차질, 파운드화의 큰 폭 약세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의 성장세가 미흡한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되 금융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과 같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는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경제 상황 인식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최근과 같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는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내년 재정정책 ‘완화적’ 보기 어려워”

“통화정책 신중해야”
“정부 구조개혁, 원할 못해”
“소비심리 회복에 역점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총재는 2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한반 간담회’에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4% 내외의 명목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내년 총지출 규모 증가는 0.5%로 매우 낮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 증가율은 낮아 결국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평가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역량을 꼽으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저역시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보다 중앙은행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엘-에리안의 저서 ‘더 온리 게임 인 타운’ (the only game in town)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더 온리 게임 인 타운이 통화정책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앞으로 경제에 있어 불거리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정책당국이 역점을 뒀어야 할 것은 취약 부문의 리스크 관리”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보다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충격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이 우리 국내 경제의 장점으로 정책당국의 정책여력을 들고 있고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졌을 때도 한국의 제도적인 건전성, 정책당국의 정책역량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됐다거나 없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조금 더 확인하고 다져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원할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총재는 “정부가 4대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일부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 대내외 여건 악화로 원할히 추진되지 못한 상황으로 본다”며 “범위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한시켜본다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이 나왔고 앞으로도 정부가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을 우선 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의 관건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것”

이라며 “수출은 여건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는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성장세 견인은 소비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올 한해를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사자성어로 정리했다.

그는 “다사다난 했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며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형 양적완화, 자본확충펀드 논의, 6월 브렉시트 투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갤럭시노트7 중단, 정타금지법 시행,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소추, 여기에 조류독감(AI) 확산까지 커다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되돌아봤다.

내년 경제여건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 예상이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과 통화정책 방향, 미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강화,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등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올 4분기를 포함해 모니터링 한 후에 1월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가족·장기 고객 신규 상품

‘가족무한사랑’·U+장기고객 더 좋은 혜택’ 내보

LG유플러스가 가족 및 장기 고객을 겨냥한 새해 신규 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22일 오전 용산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규 결합 상품과 장기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가족 스마트폰을 2~4회선 결합하면 최대 2만2000원을 매월 할인해주는 결합상품 ‘가족무한사랑’을 선보였다. 가족 4명이 가족무한사랑에 가입하면 1인당 최대 5500원씩, 총 2만2000원을 매월 할인해준다.

그동안 통신 결합상품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하는 유무선형태였지만 이 상품은 스마트폰만 결합해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가족무한사랑은 오는 23일부터 신규·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할인은 1월부터 적용된다. 결합범위는 가족 대표자 본인, 배우

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새해부터 장기 고객 프로그램인 U+장기고객 더 좋은 혜택’을 진행한다. 가입 2년이 지난 고객에게 ‘데이터 2배쿠폰’을 제공하고, 멤버십 보너스 포인트와 휴대폰 수리비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멤버십 개편으로 5년 이상 특정 요금제를 이용하는 VIP 등급 고객은 연간 기본 12만 포인트에 보너스 포인트 12만점을 더 받게 된다.

수리비 지원한도의 경우 VIP 멤버십 고객은 기본 3만점 이외에 보너스 2만점을 추가로 받는다.

최순중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장(상무)은 “새해에도 LG유플러스의 고객 지향점 ‘신뢰·소속감·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스1



거리로 나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2015년 임금협상승리를 위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융합섬유연, 공기정화용 활성탄소섬유 페이퍼 개발

ECO융합섬유연구원은 대기 중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필터소재를 탄소소재로 개발하여 지역 탄소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통상사업부의 ‘Wet-laid 공정’을 이용한 흡착제용 Pitch계 활성탄소섬유 페이퍼 개발 사업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했다.

본 과제는 융합섬유연구원이 지리산한지(유), 전북대학교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활성탄소섬유 페이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통해 상업화 기술을 축적했다.

개발된 활성탄소섬유 페이퍼는 대기 중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성

능 필터소재로, 도내 탄소섬유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의 제조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산한지(유)는 한지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탄소소재를 이용한 특수용도의 필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앞으로는 대기정화용, 수처리용, 자동차용 등의 용도로 필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정우영 실장은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도적 고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부안

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